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음 11월 2일) 제16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자기반성 없다... 국민 반응 냉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입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가 번복했던 전제가 있던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탈출하려고 핏수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즉각 퇴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과 진퇴 결정을 국회에게 맡기겠다"면서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전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낸 논평에서 "국민 농락 그만두고 조건 없이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진퇴 결정 국회에 맡겨 일정·절차 따라 물러날 것" 밝혀

전북시국회의의 "변명으로 점철 조건 없이 즉각 물러나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야권, 탄핵 행보 멈춰선 안돼"

전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에서 개인적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과 교묘한 술책만 늘어 놓았을 뿐"이라며 "검찰 출석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경위를 밝힌다는 말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시국회의는 "조건 없이 즉각 퇴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며 "박 정권의 퇴진을 위한 직접 행동을 더 확대해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중단 사태를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발끈했다. 민주노총 전북분부는 긴급성명을 통해 "여전히 핏수와 변명으로 점철된 담화"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전북분부는 "박 대통령의 담화 요지는 '사익을 추구한 죄 없었고, 경위는 추후 밝히겠다'며 임기단축과 진퇴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라며 "하지만 퇴진 절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은 시간을 벌려는 핏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새누리당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것은 퇴진하지 않겠다는 선포에 다를 바 없다"라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 부역세력으로서 함께 청산해야 할 대상인

새누리당과 헛된 논의를 하며 시간 끌기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은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이라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차질 없이 준비하며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이번 담화는 '탄핵'이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핏수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즉각 퇴진이 촛불 민심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새누리당과의 타협 등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진"은 없다. "책임 있는 즉각 퇴진"과 "탄핵" 행보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야3당, 특검후보로 조승식·박영수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최순실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를 발표하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진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야3당이 공히 합의해 추천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3일 내 2명 중 1명 임명해야

기대변인은 "의압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의 요건이었다"며 "두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관해 "이분들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역적 이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다. 한 분은 제주, 한 분은 충남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명 상 추천권자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공동 명의로 추천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추천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후보 2명 중 특검이 될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은 그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도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은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뉴스시스

"무진장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현장 기술자 배치 대책 시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별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이 현장별 기술자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이 무진장지사로부터 이들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현장 대부분이 이 같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설기술자가 현장마다 개별적으로 배치돼 시공관리, 품질, 안전,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장들은 감리 대표 1인이 2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에 중복 배치돼 제대로 된 감리와 감독이 이뤄질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들 사업 중 현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현황을 보면 ▲안

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5~2019) 총 사업비 58억 5800만원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6~2020) 총사업비 55억 1800만원 ▲부남 금강 벚꽃길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2015~2018) 총 사업비 30억 8800만원 ▲공정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2013~2017) 80억 3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3항 규정을 보면 시행령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곳의 건설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진장지사는 9명의 건설기술자를 3개 군에서 동시 추진하는 각종 농촌종합개발사업 현장에 과다 배치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실제로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대형

사업 중 안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설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성 공정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 부남 벚꽃길권역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들은 단 1명의 대표건설기술자가 배치돼 시공과 품질,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기업 특성상 건설기술자 중복배치를 승인해 현장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업관리비를 청구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도 발생함에 따라 사업별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원인 A씨는 "1인의 건설기술자가 대표로 자격증을 가지고 무주군 전체 4개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라며 "민원 발생 시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내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세번째

비율은 전국에서 세번째

전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과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 진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 교육과정 개선 등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올해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97만6,973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평가가 시행됐다. 우선 중·고등학교 전체 보통학력

(100점 만점에서 50점 이상~80점 미만) 이상 비율은 80.2%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 반면 중·고등학교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증가, 4.1%를 기록했다.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0%로 서울(6.0%)과 강원(5.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북은 지난해 4.9%에 이어 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은 중학교에서 국어(3.1%)와 영어(8%)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학 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 국어와 영어, 수학 세 과목 평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5.4%로 지난해(5.5%)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고민형 기자

고마제 찜질방 12월 1일(금) OPEN

"고마제 찜질방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수면합분 : 오후 10시까지 입장가능
- 입장료 주간 : 8,000원
- 야간 : 13,000원
-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고마제 찜질방

부안군 동진면 장동리 591-6
Tel : 584-7100